

명창·명무가 선사하는 한국 전통의 美



◀ 왼쪽부터 국립남도국악원 기획공연 '정수(精髓)' 무대를 선보일 최경만, 유영애, 김영길, 왕기철 명인.

● 남도국악원 기획공연 '정수(精髓)'...오는 27일

최경만·유영애·이정희·김영길·왕기철 명인 무대
삼현육각 연주부터 심청가·흥보가 판소리까지

한국 전통예술계의 정점에 선 명인·명무 초청 국악 무대가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7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기획공연 명인전 I '정수(精髓)'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이날 무대는 최경만 명인의 '호적종류' 무대부터 유영애 명칭의 심청가 중 '추월만정부터 황성 올라가는 대목', 이정희 명무의 '도살풀이춤', 김영길 명인의 '박종선류 아쟁산조', 왕기철 명창의 흥보가 중 '박 타는 대목'까지 다채롭게 구성됐다.

공연의 서막은 한국 전통음악 중에서도 즉흥성을 갖춘 음악 '호적종류'로 시작된다. 이날 연주에 나서는 최경만 명인은 서울무형문화재 삼현육각 보유자로 현재 삼현육각보존회장이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음악을 보존하고 알리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다음은 유영애 명칭의 심청가 중 '추월만정부터 황성 올라가는 대목'이다. 인당수에 빠진 심청이가 환생해 아버

지를 그리워하는 내용과 맹인 잔치 참석을 위해 황성으로 향하는 심봉사의 모습을 담고 있다. 유영애 명칭은 전북무형문화재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로, 남원춘향제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국립민속국악원과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을 역임했으며 판소리 후학 양성에도 힘쓰는 등 국악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어 경기무속춤 가운데 가장 어려우면서도 수건놀음이 돋보이는 '도살풀이춤'을 이정희 명무가 선보인다. 이정희 명무는 경기도무형문화재 경기시나위춤 보유자로 경기시나위춤 보존회 회장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후학을 양성 중이다.

이어지는 무대로는 김영길 명인의 '박종선류 아쟁산조'다. '박종선류 아쟁산조'는 아쟁 특유의 애잔하면서도 힘 있는 소리가 매력으로 다가온다. 김영길 명인은 진도 출신으로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을 역임했으며, 대구 팔공사야국악상과 2023 프랑스 샤를크로 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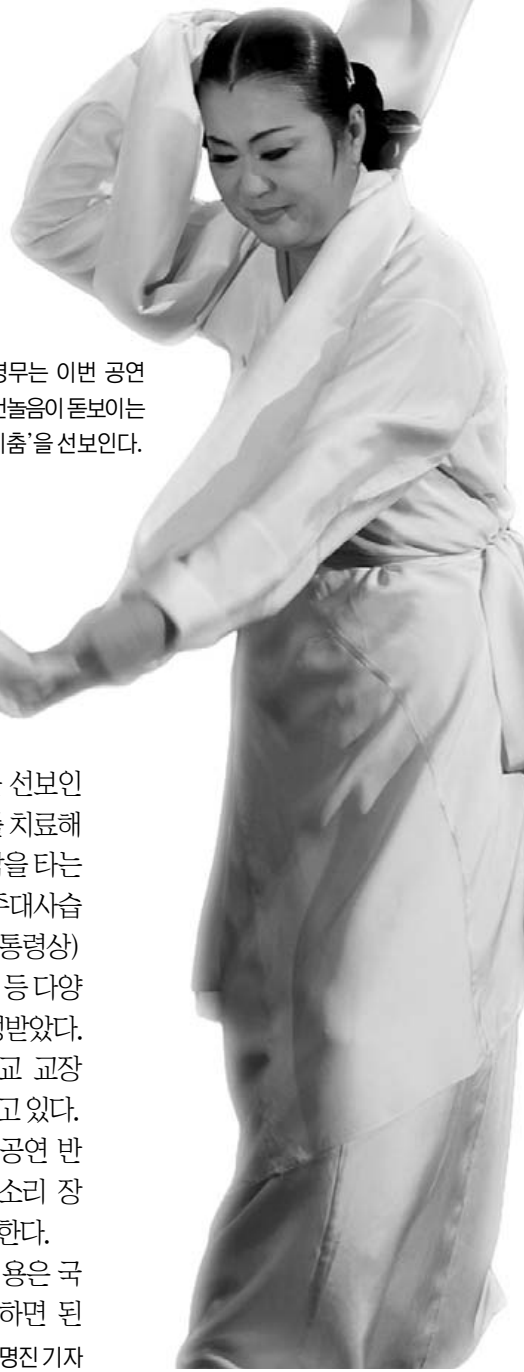
드뮤직상 등 화려한 수상 이력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왕기철 명창이 흥보가 중 '박 타는 대목'을 선보인다. 흥보가 다리를 다친 제비를 치료해 주고 받은 박씨를 심어 열린 박을 타는 내용이다. 왕기철 명창은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 장원(대통령상)과 판소리 명창전 광대전 우승 등 다양한 수상 경력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장으로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이날 명인·명무·명창 공연 반주에는 전북도무형문화재 판소리 장단 보유자 조용안 명인이 함께한다.

공연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 이정희 명무는 이번 공연에서 수건놀음이 돋보이는 '도살풀이춤'을 선보인다.



ACC, 예술가·창작자 역량 강화 지원

내달 10일 '언리얼 엔진 워크숍' 시작으로 총 5개 분야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예술가·창작자의 첨단 기술 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ACC 전문인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

올해 '역량강화 과정'은 ▲영상 창작을 위한 '언리얼 엔진 워크숍'(5월) ▲창작 매체가 지닌 기본 지식·개념을 알아보는 '사운드 미디어 창작자를 위

한 사운드 A to Z'(6월) ▲'언리얼 엔진 부트 캠프: 오디오 비주얼 라이트 쇼'(7월) ▲인공지능 속성을 이해해보는 '인공지능 탐색 워크숍'(8월) ▲언리얼 엔진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가상 아바타 제작 방법을 배우보는 '가상 아바타, 인간의 말과 행동을 품다'(11월) 등 5개 문화기술 워크숍으로 구

성돼 있다.

이번 워크숍의 첫 번째 교육은 다음달 10일부터 3주 간(9차시) 진행되는 '영상 창작을 위한 언리얼 엔진 워크숍'이다. '언리얼 엔진'의 기본 기능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기초 과정으로 게임 엔진인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 영상 작품을 제작하고 싶은 창작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은 고품질의 상호 작용성을 기반으로 평면 및 입체 콘텐츠를 짧은 시간 안에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게임

과 같은 상호 작용형 콘텐츠 제작 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구현, 버추얼 프로덕션을 활용한 고품질 영상 콘텐츠 제작 등 전문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교육 수요생들의 영상 창작 작품은 ACC 하늘마당 미디어큐브에 상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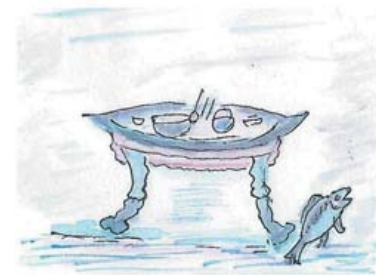
이강현 전담장은 "올해 진행되는 5개 교육이 문화예술 콘텐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진 예술가와 창작자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장희구 박사 (549) 漢詩 향기품은 번안시조

還目魚(환목어)5-택당 이식
削號還爲目 斯須忽如遺(삭호환위목 사수홀여유)
賢愚不在己 貴賤各乘時(현우부재기 귀천각승시)
이름이 삭탈되어 목어로 떨어지고
순식간 버린 물건 푸대접 당했는데
귀천이 때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네.

이름이 삭탈되어 목어 되어 순식간에 푸대접 당했다네



국어학자 조항범도 도루목이 원래는 '돌목'이란 순우리말 이름이 변했다고 어원을 밝혔다. 함경도 방언에서 이 생선을 '돌목어'라 한다. '돌'이란 말은 돌뚝, 돌봉어, 돌가지미처럼 접두어가 붙지 않은 것보다 흔하고 질이 떨어지며 모양새가 좋지 않은 저급 생선들이고 이는 들배나

들미나리 같은 이름에서도 마찬가지로라 한다. 잘나고 못한 것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고, 귀하고 천한도 때에 따라 달라진다고 읊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

이름이 삭탈돼 도로 목어 돼 푸대접을 당했다네(還目魚)로 제목을 붙여 본 율(律)의 5수인 오언율시풍이다.

작가는 택당(澤堂) 이식(李植:1584-1647)으로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당대의 이름난 학자로서 많은 제자를 배출했던 인물이다. 문명이 높아 전례 없이 정삼품의 품계로서 문형의 자리에 발탁됐으며 신흥, 이정구, 장유와 함께 한문사대가로 꼽히기도 했다.

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이름이 삭탈되어 도로 목어로 떨어져서 / 순식간에 버린 물건 푸대접을 당했다네 // 잘나고 못한 것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고 / 귀하고 천한도 때에 따라서 달라지네'라는 시상이다.

위 시제는 '임금님 돌아가자 다시 목어(目魚) 되었는데'로 번역된다. 비록 임금님이 뭉치를 와서 내린 이름이었지만 본래가 맛이 없는 고기이니 백성들의 깊은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은어(銀魚)라는 고운 이름에서 다시 '도루목'(還目魚)이란 이름으로 강등됐다는 시상 주머니를 던진다.

시인은 사람에게만 삭탈관직이란 이름을 붙인가 하더니만, 고기에게도 붙였으니 의인법을 보인다. 은어라는 이름이 삭탈돼 도로 목어로 떨어져서 순식간에 버린 물건 푸대접을 당했다고 했다. 임금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환대의 틀에서 벗어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보이는 상황을 보게 된다.

화자는 이제 도루목이란 이름이나 고기 맛이 없음이 고기의 맛이 아니라 생각에 귀착한다. 원래 잘나고 못한 것이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없고, 귀하고 천한 것은 때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이어지는 6구에는 '이름은 그저 겉치레에 불과한 것 / 버림을 받은 것이 그대 탓이 아니라네 // 넓고 넓은 저 푸른 바다 깊은 곳에 / 유유자적하는 것이 그대 모습 아니겠나'라고 해 버림받은 것에 마음 상할 필요가 없음을 떠올렸다.

(시조시인·문학평론가)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장

*한자와 어구

削號: 이름이 삭탈되다. 還: 다시. 爲目: 목어가 되다. 斯須忽: 이에 모를지기. 忽: 출연히. 如遺: 푸대접을 받다. 버림을 받다. // 賢愚: 잘나고 못한 것. 不在己: 자기(도루목에게) 있지 않다. 貴賤: 귀하고 천하다. 各: 이름 乘時: 때에 따라 다르다. 어느 시대를 타다.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

